

† 마데레스는 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레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거저 살면서도

신윤식

거저 숨 쉬고
거저 마시고
거저 햇볕 쬐며
그렇게 거저 살면서도
그 모든 것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인간이란 존재의
버릇없는 삶이던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해도
불평불만 나오는 것
거저 사는 것 모든 인간의
버릇없는 삶 아니던가.

나의 몫 삶의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삼분의 이는 살았다 싶은
지금에 와서도
거저 산다는 것 잊지 말 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9.22

발행호수 제21권 38호

하 나님 나라에 합당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도덕적 의
미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전
혀 없음을 아는 것을 말합
니다. 즉 내 세울 것이 있
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들을 힘으로

대하지 않는 겸손이 아니라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
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될 때 가능하
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실체는 죄인일 뿐이며
결국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임을
알 때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으로 바
라보게 될 것입니다. 즉 내세우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
도 없고 오직 죄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때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며 생명으로 오신 주를 바라보게 됩
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입니다. 세상에 소망 둘 것이 없는
자들이고 때문에 진정으로 소망이 될 새로운 것에 마음
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을 들을 수 있습니다.

14장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들을 귀 있
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충돌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다. 바리새인, 서
기관, 율법 교사, 이들은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소위 신
학 박사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가
르쳐 왔습다.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박식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을 듣기 위해 나아옵니다. 결국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는 말씀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
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들이 하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15:1-10

하늘의 기쁨

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온 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
는다며 수군거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함께 먹는
다는 것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세리
와 죄인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며 멀리 하는 대상들입니
다.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함께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멸의 대
상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며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비난
받을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수군거리
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늘이 기뻐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5장
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과 잃은 드
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
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
습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다가 찾아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
으로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하면서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
유의 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라” (7절)**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당연히 등불을 켜고 집
을 쏘며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으면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하면서 함께 즐기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 역시 첫 번
째 비유의 결론과 의미가 다르지 않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0절)**는 말씀으로 끝내
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보면서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개 보면 잃은 것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둡
니다. 물론 잃은 것을 찾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긴 하지만 두 비유의 결론은 기쁨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흔히 말하
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기

쁨이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보면 15장에 등장하는 비유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로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삶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아마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상식으로 굳어 있고 단단한 틀로 짜여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철저한 신앙적 행동과 도덕적인 삶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에 세리와 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고 오히려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한 부류의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 아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행동을 하며 살지 못한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행동입니까? 선행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실천입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는 뭔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모두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한 마리의 비해서 아흔아홉 마리의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흔아홉 마리는 왜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우리 안에 안전하게 둔 후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또한 한 마리를 찾은 후의 행동도 사실 조금은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 컸

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할 정도로 표현 한다는 것은 조금은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함께 즐기자는 것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양 한 마리의 값보다 훨씬 더 지출되었을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은 것을 찾고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고 하는데 이 역시 한 드라크마의 액수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것처럼 우리의 시각으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양을 숫자적인 가치로 계산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양을 숫자적인 가치로 계산하였다면 먼저 아흔아홉 마리를 신경 쓰고 후에 잃은 양을 찾았을 것입니다.

7절엔 보면 아흔아홉 마리의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흠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잃은 양은 세리와 죄인을 빗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누가 봐도 의인 아흔아홉이 더 가치 있고 귀합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자 하나는 없어져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 기쁨을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의인처럼 흠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또한 큰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알지 못하는 헛된 망상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계산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시각으로 인간을 보는가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단순히 동전 하나를 잃었다가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열 드라크마의 의미와 그 가치입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으로 그 가치는 시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하게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액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 드라크마 역시 노동자에게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도 역시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드라크마를 찾고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기고 기뻐했다는 것은 단지 돈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드라크마 열 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 드라크마를 팔찌나 목걸이 또는 머리띠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것을 세메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열 드라크마가 남편으로부터 주어지고 그것이 사랑의 징표로 사용된다면 그 열 드라크마는 이미 화폐의 가치를 벗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아홉 드라크마의 가치 또한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열 드라크마와 동일한 가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화개한 죄인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화개한 죄인을 큰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화개한 죄인 하나에 비해 의인 아홉아홉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의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화개한 죄인으로 채워집니다. 이 또한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화개한 죄인이 많이 있으니 하나쯤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개한 죄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담고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라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가 열이고 열이 곧 하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의 신앙은 자신들로 인해 굳게 세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있음으로 신앙이 지켜진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세리와 죄인은 유대 사회의 신앙 세계에서 쓸모없고 방해만 되는 존재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시각에 붙들려 있습니

다. 현대 교회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누구를 생각할까요? 교회 생활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이야 말로 주일 성수와 철저한 십일조 생활,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함으로써 분명 교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유지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교회됨을 버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흔아홉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히 잃어버린 하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아흔아홉이 뭘까요?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입니다. 그것은 곧 죄인의 화개입니다.

신자는 의인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한 죄인 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죄인 됨을 늘 자각하며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만 온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길을 잃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를 바라보며 주가 인도하는 그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늘은 이런 사람으로 기뻐합니다.

.....

신 양인이라면 누구나 평안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다만 막연하게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 졌으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연히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의 세계를 아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오우설교

시 131:1-3

영혼의 평안

(135강 8.25일 설교)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대개의 기독교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주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지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의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면 된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누구든 그 말에 반대를 하면 ‘믿음이 없다’ 는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은 교회 부흥입니다. 것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하여 결국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못 견뎌 하는 것은 자신이 능력 없는 무능한 자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는 무능하지 않다’ 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절에서 말한 마음의 교만이고 눈의 오만입니다.

교만과 오만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에 대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합니다.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만 몰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간도 피조물이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한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해도 인간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고 다만 피조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세상과, 인간관계

에서의 자신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면 자신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자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 신자답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가치를 구분하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성입니다.

우리는 일의 가치를 구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동일한 가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령 화장실 청소하는 것과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보다 외지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고 대단하고 높은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러한 습성이 교회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비교와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습성에서 평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과 자신과 이웃을 보게 될 것이고 인간이 어떤 일을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기에 그 일을 명분 삼아 자신이 높임 받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앞으로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젓 떼어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젓 떼어 아이와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영혼의 고요, 평온의 상태를 어머니 품에 있는 젓 떼어 아이로 표현합니다. 젓 떼어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젖에서 입을 떼고 품에 안겨 잠을 자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즉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족함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혼의 고요와 평온의 상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요, 평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족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평온의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자신에 대해 족함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남들처럼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하고자 하는 교만과 오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됩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관심은 다시 그 사람을 향하게 되고 자신은 경쟁과 시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간의 행함에 가치를 두지 않고 높아지고자 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무의미한 것임을 알게 되는 이것이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랍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신자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의 증거물이 아닙니까? 따라서 신자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증거 해야 할 도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신을 나타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절)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만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평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덕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크고 놀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안겨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은 확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 있는 것이 놀라운 복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영혼의 고요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 벨론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돌아가면서 그다라를 유다를 통치할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남녀와 유아와 포로로 끌고 가지 아니한 빈민들을 그다라에게 위임합니다. 또한 그다라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 있던 지휘자와 부하들도 돌아옵니다.

그다라는 아히감의 아들로 유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여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를 재건하고 힘을 모아 바벨론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은데 그다라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9절)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스바에 살면서 갈대아 사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다라는 마치 친 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유다의 장래를 위해 바벨론을 섬기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을 섬기려는 것은 예레미야도 외쳤던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다라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해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다라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바벨론을 섬기려는 것도 예레미야가 외쳤던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유다가 사는 길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 있음을 알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에돔 등 여러 지방으로 도망쳐 있던 유다 사람들도 그다라가 총독이 된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외중에 그다라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요한년이 알고 그다라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다라는 요한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한년이 그다라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년이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다라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수요일설교

렘 40:7-16

총독 그다라

(92장 9.18일 설교)

그 이유는 그다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다라가 유다를 배신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다라는 바벨론을 섬기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누가 들어도 바벨론 편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다라에게는 예레미야가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그다라가 잘못된 말을 했다면 예레미야가 지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다라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잠잠합니다. 그것은 그다라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다라를 죽이고자 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라를 죽이는 것이 유다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다라를 죽임으로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다를 위한 애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은 유다가 자신의 멸망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일 것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다라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이려고 한 것은 유다의 멸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패하면 '예 나는 실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실패야 합니까?' 라며 불만을 토해냅니다.

만약 여러분께 '당신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한다면 순순히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왜 지옥가야 하느냐'고 발끈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지옥이 당연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결국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모든 고백은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입니다. 자기 일이 형통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일이 형통하든 실패하든 인간은 하나님 관계에 있지 못하면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내 일만 형통하여 잘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에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운명을 신이 정한 것이라면 운명에 지지 않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합니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실패했다면 실패와 싸워 이겨서 기어코 성공함으로 운명을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을 말하는 사람들도 운명의 끝의 무엇인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실패와 고통을 운명과 연결하여 생각할 뿐 운명의 끝이 저주로 인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이기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운명을 이기는 자도 없습니다. 신자는 운명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 자신에게 당연함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을 이기는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소망을 주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멸망의 현실을 거부하고 이겨보고자 하는 것은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은 현실을 추구하고 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해도 그로 인해 나의 존재됨을 알고 주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자는 주님과 관계에 붙들려 있는 것만으로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처지를 가지고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주로 인해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생명이신 주를 바라보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3장
 교 독 : 21(시34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415장
 성 경 : 눅 15:1-10
 말 씀 : 하늘의 기쁨(77장)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4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7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24장
 기 도 : 서창남 집사
 찬 송 : 369장
 성 경 : 시 135:1-7
 말 씀 : 특별한 소유(139장)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97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3장)

■ 교회소식 ■

1. 재건교회 95회 총회가 23일(월)오후 7시에 광주재건교회당에서 열립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신미정 집사

이단 ④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박태선의 전도관이다. 전도관은 1955년에 창립되었고 초기명칭은 한국예수교부흥협회였다가 후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로 불렸다. 이때는 전도관이라고 하였다가 1980년 1월부터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로 변경하면서 전도관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천부교로 부른 것이다. 박태선이 전도관을 버리고 천부교로 변경한 것은 자신이 천부가 되었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태선은 1990년에 사망한다. 전도관은 박태선이 자신을 천부로 선포하면서 많은 이탈자가 발생했고 박태선의 사망 이후로도 분열이 끊이지 않아서 현재 계열 분파만 20여개 파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박태선에 대한 별칭은 ‘영모님’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이긴 자’ ‘이슬 성신’ ‘참 구세주’로 아주 다양했고, 자신을 천부로 선포한 때부터는 ‘새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전도관 초창기 때는 자신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사 41:2절의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는 구절을 이용한 것이다.

동방을 동양으로, 사 41:25절의 ‘해 돋는 곳’은 동방 중의 극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극동은 일본, 한국, 중국 세 나라인데 사 41:1절에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고 하였으니 일본 섬나라는 조용하라는 뜻이고, 사 41:9절에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라고 했으니 아시아 대륙 모퉁이에 위치한 한국이 바로 동방의 그 나라를 가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다시 41: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라고 했으니 이북이 고향인 박태선이 북쪽에서 월남했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일깨워 부르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박태선을 감람나무라고 한 것은 속 4:11-14절과 계 11:4절에 언급된 ‘감람나무’라는 말을 인용하여 동방의 의인이요 감람나무인 박태선에게 이슬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 준다고 말하고 있다.

전도관의 교리에서 유명한 것이 생수의 교리다. 이 생수의 교리로 인해 서 전도관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생수를 신앙촌 상품 판매의 경쟁에 악용해 왔고 생수도 특별 생수권과 정기 생수권으로 구별하여 값을 다르게 매기기까지 했다. 생수의 근거는 요 4:10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한 생수에 두고 있으며, 만병통치약으로 신도들이 믿도록 만능의 물로 선전 했다. 또한 전도관은 생수를 병 치료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데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박태선은 1980년 초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새 하나님이며, 그 당시에 자신의 나이를 5,798세라고 하는 등 허황된 말을 일삼고 예수는 99%가 거짓이고 크리스마스 날은 마귀 날이므로 폐지한다는 발표를 하고, 한 때 석발령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유는 모발에 마귀가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태선이 성경까지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개인우상화에 몰두하자 신도들이 속속 이탈하여 100만을 헤아리다던 신도수가 박태선이 사망한 1990년 2월 7일 당시에는 약 이천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몰락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박태선의 사망 후 전도관, 즉 천부교는 거의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확장 일로에 있다고 하니 천부교도 성도들의 주의해야 할 이단이 아닐 수 없다.